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조손가정 지원 등 복지사업 박차”

“북구는 관광업과 디지털 가전산업 등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갖추고 지역경제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특색 있는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은 6일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모두

말바우 시장 적극 육성

가 잘 사는 북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송 청장은 이를 위해 말바우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용봉동 패션의 거리, 운암동 공구의 거리 같은 전문 상점 거리 육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특산품(무등산 수박·지산 딸기 등) 브랜드 개발 등 도시와 농촌 복합 경제 부양 및 지원 사업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오는 2월 말 북구 노인복지타운 안공과 함께 상반기 내에 우산동 아동복지관 건립 공사로 차질 없이 진행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심혈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서비스 연계 전담부서 인력 보강·조손 가정 지원 사업 등 특색 있는 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해 ‘복지 북구’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이다. 송 청장은 특히 “주민 중심 행정서비스와 주민 주도형 참여행정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구는 ▲지난 10년간 마을 만들기 추진 사례를 담은 ‘마을 만들기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하고 ▲동네 한 바퀴 주부 순찰단·북구 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주부명예기자 운영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외국인과 다 문화 가정을 위한 지역적응 프로그램(한글·취업교실)을 보급하는 등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



창장 국제 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등산 서석대와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전통한옥마을, 시가문화권을 한데 아우르는 관광개발 계획도 수립해 북구를 광주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내놓았다.

송 청장은 이밖에 노후 도심 활성화 사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주민 참여행정 확대 추진

집 주차장 갖기, 마을 단위 공공 체육시설 확대, 다목적 체육관(동림동), 우산 근린공원 수영장 건립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청장은 “올해도 북구가 광주 경제를 선도해 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주요 시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정동채 “현안 예산 삭감은 지역 예결위원 책임”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예산 등 광주의 속원사업 예산이 삭감, 누락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흔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찬용 “금호 살리기운동본부 구성”

○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은 6일 금호산업 위크아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난 60년간 향토기업의 망형 역할을 해 온 금호 아시아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금호그룹 살리기에 광주시와 시민들이 함께 나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전 수석은 “금호 아시아나 회생을 위해 금호 아시아나 협력업체·광주시·지역경제계·지역 정치권·시민사회단체·시민들이 참여하는(가칭) 금호아시아나 살리기운동 민관합동본부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규 16일 자서전 출판기념회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한규 전 북구 부구청장이 오는 16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서전 ‘함께 만드는 세상, 함께 나누는 세상’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부구청장은 ‘김한규의 희망이야기’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2급까지 오른 35년간의 공직생활을 솔직 담백하게 엮었다.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 사회·문화 살피기, 고향인 광산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방법론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0억원)과 CGI센터(30억원), CT연구원(20억원) 건립 예산 등이 삭감됐다”며 “정부는 오는 2월 추경예산안에 삭감된 광주지역 속원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지역 속원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전략적 부재의 아쉬움은 있지만, 과연 지역의 일꾼들이 전력을 기울였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일 “광주시장 후보 이용섭 지지”

○이영일 전 국회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차정,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용섭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중 문화협회 총재를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은 “행차부, 건교부장관, 국제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은 참신하고, 지역 대화 출신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광주시민이 이용섭 의원을 시장으로 뽑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잘한 선택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for 'The Best' (최선) construction services,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hochuljeon' (초절전) energy-saving air conditioning units, highlighting energy efficiency and features.

“미래 생산도시 도약 이끌겠다”

전갑길 광산구청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은 6일 “광주를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산도시이자 복지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자치 실시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르네상스를 열고 지방자치와 중앙정치가 생산적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며 “광주시의원 3선과 16대 국회의원, 성공적인 구청장직을 역임하면서 지역민의 평가와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주의 일대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중



인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민주당을 이끌 핵심 인사들은 정권 교체에 집중해야지 지방선거에 거들거리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인은 정

“무명의 함평 명품 돼 뿌듯” 이석형 함평군수 퇴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석형 함평군수가 6일 퇴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활동에 들어갔다.

이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함평군 대동면 함평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했다. <사진>



이 군수는 퇴임사에서 “무명의 함평이 전국적인 화제와 명성을 갖게 된 것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한데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군수로 재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지혜를 자양분 삼아 또 다른 도전에 나서기 위해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이날 퇴임식에서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와 기업체 강연 등을 통해 받은 강연료 4천여만 원을 공무원 자녀 장학금으로 공무원노조에 전달했다.

이 군수는 지난 1998년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민선 2기 함평군수에 당

선된 뒤 내리 3선 연임에 성공했으며, 12년 동안 나비축제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이끌면서 기초단체장이 뽑은 최고로 일 잘하는 단체장에 선정되는 등 창조적인 경영행정의 선두주자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특히, 나비축제의 성공을 발판으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한 친환경 자치단체의 대명사로 떠올랐으며, 이러한

지역의 이미지를 잘 활용한 신선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성공신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8일 고향과 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전남을 바꾸는 희망탐사 2010’을 주제로 전남 지역 22개 시·군을 순회 방문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함평=황은희기자 hwang@

광주 제1하수처리장 주변 공원 된다

市 3년간 678억 투입, 생태숲·휴게시설 등 조성

오는 2012년 지하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서구 유촌동 제1하수처리장 인근이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자연화 처리시설 일체를 모두 지하화하는 것은 물론 그 주변

을 모두 생태 숲이나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배치해 악취 등에 의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6월 시에 따르면 3년 동안 모두 6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악취 제거를 위해 모

두 제1하수처리장 지하에 두고, 3단계에 걸쳐 70여억원을 투입, 상무시민공원의 4배에 달하는 72만6천㎡를 환경생태관, 생태숲 등의 시설이 집약된 생태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하수처리장 주변 40만5천㎡를 생태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마쳤으며, 1단계로 관리동과 제2축구장 주변 산책로와 휴게시설 배치, 생태 숲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현식기자 chadol@